



|   |       |  |                         |   |                                |
|---|-------|--|-------------------------|---|--------------------------------|
| <br><b>인천광역시</b> |       | <b>보 도 자 료</b>   |                         |  |                                |
|   |       |  |                         |   |                                |
| 담당<br>부서  | 자원순환과 | 배포일자   | 2023년 9월 10일(일)<br>총 2매 |   |                                |
|   |       | 담 당 자  | • 자원순환시설팀장<br>• 담당자     |   | 최명환 ☎440-3581<br>정희옥 ☎458-7088 |
| 사진(이미지)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관련 영종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연기

-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조만간 재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8일 중구 제2청사 회의실에서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관련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열었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천시 폐기물 처리현황과 자원순환센터 확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추진사항과 건립 필요성 등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반대투쟁위가 주장하는 영종지역 5개 후보지 백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만든 자리였다.

하지만 간담회 시작 전 일부 단체들이 간담회 진행을 거부하면서 마찰이 생겼고, 더 이상 회의가 불가능해 이날 간담회는 개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쟁이 되는 부분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으므로 조만간 간담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들으며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밖에도 자원순환센터가 입지하는 지역과 입지하지 않는 지역에 차등 적용되는 부분과 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에 대한 각종 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주민 간담회는 갈등해결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참석하신 일부 주민분들의 권리가 상실된 부분은 아쉬웠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기 희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